

<중국사무소>

중국문화산업 이슈페이퍼

2008년 5월2주

KOCCA 중국사무소

□ 목 차

1. 한국드라마 ‘지루함’의 예술.....	3
-------------------------	---

1. 한국드라마 '지루함'의 예술

중국광과영시 제413기



조사한데 의하면 2007년 CCTV가 수입한 25부 드라마 중 한국 드라마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2004-2006년 CCTV시청률 순위 10위안에 드는 것도 대부분 한국 드라마라 한다.

CCTV와 CSM이 제공하는 <시청률로 보는 한국드라마 열기>에 관한 보도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거의 모든 성급 TV방송국이 한국 드라마를 방송하고 있으며 CCTV-8 점심 이후에 방송되는 <환구극장>과 저녁에 방송되는 <해외극장>은 대부분 한국 드라마를 재방송 한다고 하였다. 보다 깊이 한국드라마가 중국에서의 열기는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국드라마의 '지루함'에 지치기도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중국 관중들이 한국 드라마를 즐기는것이 현재의 실제 상황이다.

한국드라마 '지루함'의 예술이란 '일상 생활을 미화'하는 것인데 최대한 사소한 일상들 속에서 평범한 미를 발굴하는 것이다.

일상을 겪는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의 지루함 속에서 현실에 대한 불만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었으며 미화된 일상을 감상하면서 심리적인 위안을 받게 된다.

한국드라마가 '지루하게'느껴지는 원인은 가상 공간속에서 인생관과 세계관을 표현함과 동시에 이야기 즐거리와 크게 관련 없는 내용(언어, 일상행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이와 같이 별것 아닌 사소한 부분이 취미성, 지식성, 인도성으로 한국 드라마'지루함'의 예술가치를 충분히 발산하고 있다.

'지루함'예술과 생활의 친근성

'지루함'예술의 의의는 평범한 일상과의 친근성에 있다. 많은 국가의 드라마는 감관적 자극을



주는 오락관념에 치중하는 반면 한국드라마는 격렬한 표현 방법보다는 일상에 대해 자연스럽게 고 섬세하게 묘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지루함' 예술의 취미성

중국에서 일게 된 한국 드라마 열풍으로부터 볼 때, 한국 드라마는 심한 기복과 격렬한 모순 충돌 및 선악에 대한 극단적이 표현이 없고 오히려 평범하고 담담한 이야기 흐름속에 재미가 깃들어있다. 한국 드라마의 취미성은 풍부한 생활일상에 대한 표현에 있다.

관중들은 드라마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가장 본토적인 풍습과 민족문화를 접할 수 있으며 일정한 정도에서 관중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킨다. 예를 들면 <대장금>에서 표현한 한국요리, 의약지식과 제작방법등은 마치 500년전의 사회 생태를 그대로 반영한듯 느껴져 관중들에 대한 한차례의 전통문화 학습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 한국 드라마는 메이크업, 패션, 코디 및 인테리어 등 부분도 아주 중요시한다.

'지루함' 예술의 지식성

한국 드라마는 '지루함'의 생활 일상속에 많은 교육의의가 담긴 생활 상식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드라마의 지식성은 사소한 생활일상 속에 있는데 주로 극중 주인공을 통해 전달된다.

'지루함' 예술의 유도성

문예작품의 최종 목적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미, 아름다운 희망과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생활태도를 전달하는 것이다. 한국드라마를 즐겨보는 사람들은 모두 알다 싶이 한국드라마는 지루하면서도 일종의 적극적인 태도를 반영하고 있으며 인생에 중요한 유도적 의의가 있는 대중 문화이다.

우선 한국 드라마의 가상 공간은 순수하고 건강하며 아름다운 세계로서 현대인들이 날로 경솔해지고 있는 마음을 정화시키고 정확한 세계관을 수립하게 한다.

한중 양국은 모두 유가문화의 후대로서 유사한 사상도덕을 가지고 있으며 문화기초, 가치관념과 행위 면에서 서로 통하는 면이 있다. 한국드라마는 바로 이와 같은 문화상의 동원성을 이용해 평범한 생활 속에 유가사상을 전달한다.

논리관념의 홍보 외 한국 드라마는 '지루한' 이야기 줄거리 가운데 애국주의정신과 전통미덕도 선양한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한국 드라마가 저극 향상하는 진취 정신을 선양함으로써 관중들의 정확한 가치 관념을 수립하는데 유리하다는 점이다.

총적으로 '일상생활을 미화'한 한국 드라마는 간단한 '소인물'소재와 평범한 생활에 대한 묘사를 통해 대중들의 문화 생활을 풍부히 하고 있다. 거의 현실에 가까운 '가상 공간'을 마련하는 과정에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반면 한국드라마를 더욱 무게 있고 심도 깊은 풍부한 작품으로 인정하게 한다.

한국 드라마 '지루함'의 예술의 근원은 '사람'에 있다. 복잡한 사회요소를 버리고 존중, 이해와 사랑을 둘러싸고 평범한 생활 자체의 가치를 발굴함으로써 '지루함'의 예술을 이용해 tv예술의 매력을 발산하였으며 생활 자체의 매력도 보여주고 있다.

'지루함'의 예술은 사실 생활의 예술이 아닐까 싶다.